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학교 밖 쓰기 활동의 차이

이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 * 이 논문은 제9회 문식성연구회 전국학술대회(2013.2.2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시사점과 제언

I. 서론

노명완(2002)에서는 문식성을 실제 생활 속에 기능하는 사회적 행위로 정의내렸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다면 쓰기 교육 연구도 실제 생활과 사회 속에서 쓰기가 수행되는 모습을 연구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국내 쓰기 연구에서는 주로 텍스트 자체 또는 학교 안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에 본고는 문제 의식을 지니고 청소년의 학교 안에서의 쓰기 수행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쓰기 수행을 살펴볼 수 있는 학교 밖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적 작문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학교 안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쓰기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형태, 목적을 지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수행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연구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다양한 문식성 실천을 탐색한 연구(Barton & Hamilton, 1998; Barton & Ivanic, 1991), 청소년 몰입 독자의 학교 안과 밖에서의 문식성 실천과 이를 통한 자아개념 형성에 대한 연구(Soonyoung Lee, 2007), 청소년의 독특한 쓰기 수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Camitta, 1993; Finders, 1997), 다

양한 시각적 기호를 사용한 쓰기 수행에 대한 연구(Cintron, 1991), 인터넷 검색과 채팅을 통한 쓰기 수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Cohen, 2006; Knobel, 2007; Lankshear, 1997),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쓰기나 커뮤니티에서의 쓰기 활동에 대한 연구(Ball, 2000; Cushman, 1998; Heath & McLaughlin, 1993; Moss, 1994) 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국외의 문식성 연구자들이 학교 밖 쓰기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며 실제적인 문식성 실천에 대한 연구가 쓰기 수행 자체를 더욱 의미있고 풍부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원주민인 청소년들을 디지털 이주민인 국어교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Prensky, 2001), 학생들을 쓰기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쓰기 교육 연구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쓰기 교육 현장에 의미있는 함의를 송환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우선 학생들의 실제적인 쓰기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Moje(2002)는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식성 연구의 중요성과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학교에서의 국어 수업의 연계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Barton(2007)은 문식성(literacy)이란 학교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매일의 평범한 삶(everyday ordinary life)에 스며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다양한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쓰기 교육 연구에서도 쓰기의 상황과 목적, 매체 등 여러 면에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 청소년의 쓰기 활동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 연구 범위를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국제 학업 성취도 쓰기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학업 성취도 언어 영역 평가에서도 성별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에는 수학 과목에서도 성별에 따른 성취도 차이가 있었지만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어 과목에서는 성

별에 따른 성취도 차이가 증가하고 있어(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학생들이 쓰기 평가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생득적 차이라는 주장(가령 남자는 생득적으로 언어 능력이 여자보다 낮다는 주장), 성 정체성(masculinity, femininity)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가령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은 계집애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또래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 국어과 교육과정이 여학생에게 더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학생의 학업 성취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가령 교과서에 문학 작품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는 여학생들에게 더 친화적인 글 유형으로, 정보 전달 글이나 설득하는 글에 흥미가 더 높은 남학생들은 학교 안 국어 수업에 대한 흥미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 쓰기 매체에 있어서 학교 안에서는 인쇄 매체 기반의 쓰기 수업을 진행하나 남학생들은 인쇄매체 기반보다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할 때 쓰기 흥미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 안 쓰기 수행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은 어떠한 쓰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성별과 학년에 따라 쓰기 수행에 사용하는 매체, 쓰기 활동의 유형, 쓰기 활동의 이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쓰기 활동을 유도하고 실제적인 쓰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학교 밖에서 어떠한 쓰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상적 삶에서의 쓰기 활동을 살펴보고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학교 안 쓰기 교육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쓰기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쓰기 활동’이란 서론-본론-결론 등 완전한 구조를 갖춘 한 편의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이상의 글이라면 모두 쓰기 활동으로 간주했다. 가령,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쓰거나 수업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행위도 한 문장으로 이상으로 적는다면 모두 쓰기 활동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같은 SMS(Short Message Service)는 쓰기 수행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핸드폰 문자메시지의 경우 한 단어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쓰기 수행보다는 말하기 수행에 가까운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는 문자메시지(SMS)를 문자 언어이나 높은 구술성으로 말미암아 말하기 수행에 가깝다는 정의(Jakobsen, 2009)에 근거했다.

또한 ‘학교 밖에서의 쓰기 활동’을 학교 안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시에 의한 쓰기 활동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방과 후 청소년 필자가 자발적 의도에 의한 쓰기 활동으로 정의내렸다. 이는 쓰기 매체에 있어서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통한 쓰기 활동을 포함하며, 쓰기 의도 또한 학문적 목적뿐만 아니라 즐거움(for pleasure)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는 실제적인 쓰기 활동을 의미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쓰기 수행 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사용하는 매체는 다른가?
2. 학교 밖 쓰기 수행 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쓰기 활동에 대한 흥미도는 다른가?
3. 학교 밖 쓰기 수행 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쓰기 유형이 다른가?
4. 학교 밖 쓰기 수행 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쓰기 수행의 이유가 다른가?

II. 이론적 배경

1.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

쓰기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이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는 쓰기 수행에 대한 자아 효능감과 필자로서의 자아 개념, 쓰기에 대한 가치, 쓰기 목적, 쓰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의 쓰기 동기와 관련이 있다.

우선 쓰기 효능감(self-efficacy)은 Pajares, Valiante & Giovanini(2001)에 의해 초등학생에서 중등학생으로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고 고등학생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쓰기 효능감은 필자로서의 자아 개념, 쓰기에 대한 가치, 쓰기 목적, 쓰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포함한 쓰기 동기와 긍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쓰기 불안감과 쓰기 수행 회피 경향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쓰기 효능감에 대한 성별 차이는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성 정체감(gender orientation beliefs)이 통제되었을 때 쓰기 효능감에 대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쓰기 효능감은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과도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쓰기 수행의 매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쓰기 수행 시 컴퓨터를 덜 사용하며 컴퓨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Durndell and Thomson, 1997; Kadijevich, 2000; Shashaani, 1997; Whitley, 1997). 이에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밝히기 위해 컴퓨터 선호도에 미치는 중재 변인(예를 들면 컴퓨터 사용 경험이 컴퓨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을 찾는 연구

들이 이어졌다(Colley, Gale and Harris, 1994). 그러나 컴퓨터 사용 경험 변인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쓰기 수행 매체에 대한 성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Mitra *et al.*, 2001).

또한 쓰기 수행의 매체 선호도는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초기 연구는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필자층에서도 이러한 성별 차이가 존재함이 밝혀졌다(Shashaa-ni, 1999). Comber *et al.*(1997)에 의하면 영국에서 중등 학생(11-12세, 15-16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이가 더 어린 집단이 컴퓨터 사용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컴퓨터 사용과 선호도에 대한 성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이메일을 타인과 의사 소통하고 여러 정보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주 과업인 매체로 본다면, '여성 친화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컴퓨터 사용과 선호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간격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쓰기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흐름을 고려할 때, 쓰기 연구에서도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쓰기 수행의 유형 및 이유

PISA(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읽기 영역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인 나라는 핀란드였다. 핀란드 학생들은 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데 높은 능력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핀란드 학생들은 다른 OECD 국가의 학생들보다 더 자주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종류의 책을 읽으며 이들 중 41%의 학생들은 자신의 취미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이 책 읽기라고 답한 것이고, 둘째는 모든 나라에서는 성별 간 읽기 성취도 격차가 컸지만, 핀란드에서는 성별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Lyytinen,

2002). 이는 핀란드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만 읽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책을 적극적으로 읽고 책 읽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좋은 독자가 좋은 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쓰기 교육에서도 학생 필자, 특히 낮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남학생 필자들의 쓰기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Brozo, 2006). Millard(2001)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학교 안 쓰기 활동을 싫어한다고 밝혔고, 반대로 여학생들은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서의 쓰기 활동 모두를 좋아한다고 조사되었다. 남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쓰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의 쓰기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학교 안의 쓰기 활동이 실제적인 삶과 관련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학교 안의 읽기·쓰기 활동이 대부분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실제적 읽기·쓰기 활동은 인터넷, 미디어, 비디오, 텔레비전, 대중 문화 잡지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Hyatt, 2003)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쓰기 활동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글 유형에 성별 차이가 있음을 밝힌 Wilhelm(2000)에서 밝힌 남학생들은 정보를 얻는 글을 읽거나 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결과는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남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성취도가 낮은 또 다른 원인으로 책 읽기와 글 쓰기는 남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또래 문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된다(Brozo, 2002). 이러한 문화는 성별에 따른 다른 종류의 책을 읽게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 표지를 보고 “여자 책”인지 “남자 책”인지 구분하여 읽을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Dutro, 2002), 이를 통해 성별에 따라 읽기 유형뿐만 아니라 쓰기 유형에도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학교 안 쓰기 교육도 남학생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쓰기 주제를 선택하여 우선 남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쓰기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계점(bridge)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남학생들이 읽기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여 읽기·쓰기가 비남성적(non-masculine)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점차 정교화된 읽기·쓰기 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수업 모델로 개발한 선행 연구(Scieszka, 2002)도 참고할 만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인 Tomas(2007)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14세에서 17세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의 쓰기 활동이 활발하다고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학교 밖에서의 쓰기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쓰기 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연구 대상을 표집하였고, 14세에서 17세에 이르기까지의 청소년 약 4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총화표본추출방법¹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표집

1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통계학적 총 학생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종		서울	경기
	학생수	315,241	463,258
	학교	379	593

된 연구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참여자들의 분포

학년	전체	성별	
		남	여
중학교 1학년	84	50	34
중학교 2학년	114	54	60
중학교 3학년	92	59	33
고등학교 1학년	97	41	56
총	387	204	183

고	학생수	344,391	375,026
	학교	317	334
구/시	25개 구	27개 시	

각 단위로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고, 경기 지역에는 27개의 시가 존재한다. 모집단에서 표집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서울과 경기 지역 내 전 지역에서 고르게 선별될 수 있도록 서울의 '구'와 경기의 '시'를 표집 단위로 삼았다. 또한 각 학년별로 100명씩을 선별함에 있어 국어 성적을 비롯한 여러 학업 성적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를 표집의 단위로 선별하였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의 지역 단위 52개에서 단순 무선 표집 방법으로 고등학교급 한 지역, 중학교급 두 지역을 선정하였다. 고등학교급은 고등학교 1학년 1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하나의 학교를 단순 무선 표집하였고, 중학교는 중1, 2, 3, 각 100명씩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두 학교를 단순 무선 표집하였다. 고등학교급으로는 안양시가 추출되었다. 안양시에는 14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이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단순 무선 추출한 결과 P고등학교가 선발되었다. P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무작위로 1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중학교급으로는 52개의 지역단위에서 두 개의 지역을 단순 무선 추출한 결과 서울 양천구와 동대문구가 선정되었다. 양천구에는 18개의 중학교가 있고, 동대문구에는 15개의 중학교가 있다. 이들 중학교에서 각각 하나의 학교를 단순 무선 표집한 결과 S중학교와 H중학교가 표집되었고, 이들 학교에서 각 학년 당 100명씩 300명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조사 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설문지의 타당도는 세 명의 국어교육 전문가²의 점검과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함으로써 확보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어떠한 자발적 쓰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성별과 학년별 차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현상 연구로,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측정은 불가능하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 조사 도구의 구성

구성	내용
개인의 특성	학년, 성별
쓰기 수행의 매체	종이 / PC(인터넷)
쓰기 수행 흥미도	학교 안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 학교 밖 비자발적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
쓰기 수행의 유형	일기·소설·시 쓰기 / 블로그에 글쓰기 /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 / 기타
쓰기 수행의 이유	정보 공유 / 의견 표현 / 자신을 표현 / 관계유지 / 시간 때우기 / 기타

설문은 해당 학교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교사는 설문을 하기 전 설문에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명확히 이해 시킨 후, 설문에서 정의한 개념을 기준으로 설문에 자기 평가하게 하였다.

3. 분석 방법

SPSS 20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학교 밖 자발적 쓰기 활동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또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검정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학교

2 이들은 모두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중 두 명은 석사 학위 소지자이다.

밖 자발적 쓰기 활동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또는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해석

연구 참여자의 학교 밖 쓰기 수행 시 사용한 매체를 조사하고 학교 밖 쓰기 수행 시 흥미도를 학교 안의 쓰기 수행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학교 밖 쓰기 수행을 좀 더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쓰기 유형과 쓰기 활동의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학생 필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쓰기 수행의 매체

다음은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 필자들이 학교 밖 쓰기 수행 시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3. 쓰기 수행 시 컴퓨터 사용 비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
371	0	100	56.44	28.203	795.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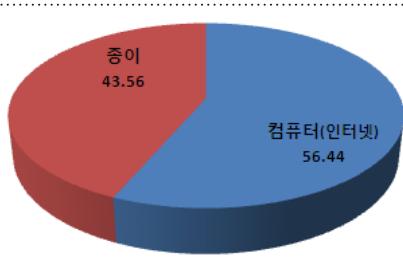


그림 1. 쓰기 수행 시 사용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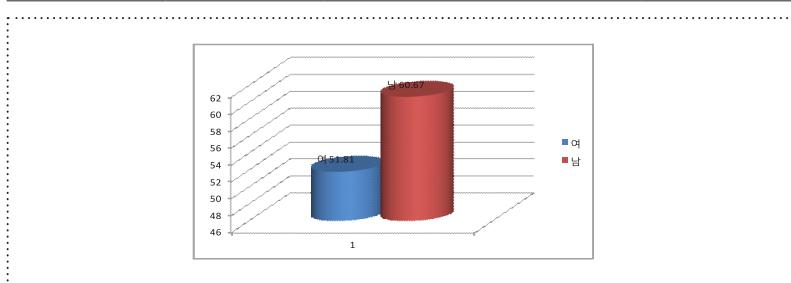
〈표 3〉과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를 56.44%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가 거의 종이 매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상당히 많은 정도로 쓰기 수행 시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lson(1996)에서는 구두언어에서 문자언어로의 표현 매체의 전환은 인간이 추상적 사고와 탈맥락화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한 큰 변혁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쓰기 도구가 인쇄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 이동한 것은 Bolter(1998)와 Purves(1998)가 지적한 것처럼 언어 사용자의 문식성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은 이미 인쇄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고려할 때 인쇄 매체만을 사용하는 지금의 학교 안 국어시간의 쓰기 수업 모습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쓰기 수행에 사용하는 쓰기 매체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 성별에 따른 사용 매체의 차이

학교밖_매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여	177	51.81	27.264
	남	194	60.67	28.450

t통계값 - 2.14
유의확률 .002



〈표 4〉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에 따른 차이를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이 -2.14 , 유의확률 0.002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에 따라 쓰기 수행 시 사용하는 매체에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들은 평균 51.81%이나, 남학생들은 60.67%를 사용함으로써 남학생들이 8.86% 더 많이 종이보다 인터넷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gittai(2005)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며 인터넷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미국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국어 과목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낮은 쓰기 성취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학교 안 쓰기 수업에서도 컴퓨터나 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³

학년에 따른 쓰기 수행에 사용하는 매체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 방법으로 검정한 결과 F통계값이 4.967, 유의확률 0.002로 유의수준 0.05에서 학년에 따른 사용 매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학년에 따른 쓰기 수행 시 컴퓨터(인터넷) 매체 사용 정도를 사후분석해 본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중학교 3학년 시점부터 쓰기 수행 시 종이보다는 컴퓨터(인터넷)를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은 PISA 2009 인쇄 매체 기반의 평가 형태인 PRA(Print Reading Assessment)의 우리나라 남녀 학생들의 차이는 35점으로 거의 1년 정도의 학습량 차이(39점)를 보였으나 컴퓨터 매체 기반의 평가 형태인 DRA(Digital Reading Assessment)에서는 남녀 차이가 18점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PRA에서보다 DRA에서 향상된 성취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남학생들이 인쇄 매체 기반보다 컴퓨터 매체 기반에서의 문식 활동에 동기가 높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표 5. 학교 밖 매체

학년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1	2
중2	112	51.34	
중1	81	54.32	
고1	91	55.38	55.38
중3	87		66.09
유의확률		0.808	0.080

동일 집단군에 있는 집단에 대한 평균이 표시됩니다.

a. 조화평균 표본 크기 91.413을(를) 사용합니다.

2) 학교 밖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

학교 밖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를 함께 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학교 밖 쓰기 수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연계점(bridges)을 찾아 학교 안 쓰기 교육이 더욱 풍부한 의미를 갖게 함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 쓰기 수업을 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 진행을 위한 선행 과제라 판단하였다.

표 6.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

	학교 안 (%)		학교 밖 (%)	
전혀 재미없다	45	(11.6%)	9	(2.3%)
재미없다	162	(41.8%)	25	(6.4%)
재밌다	175	(45.1%)	91	(23.5%)
아주 재밌다	6	(1.5%)	263	(67.8%)
합계	388	(100%)	3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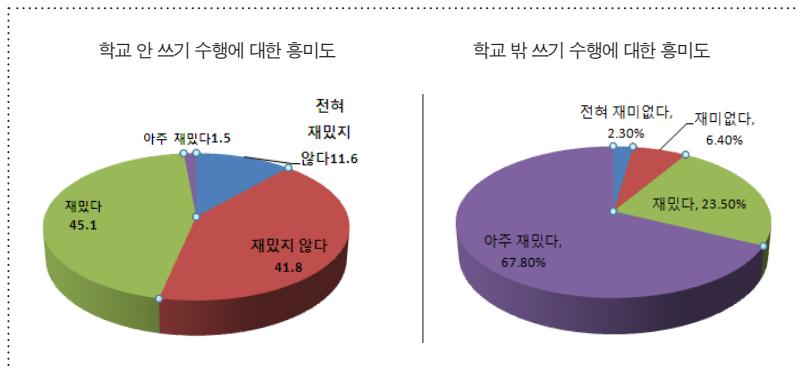


그림 3.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

〈표 6〉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의 쓰기 수행이 재밌는가에 대한 질문에 50% 이상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안 쓰기 활동이 재밌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학교 안 쓰기 활동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기술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많이 나온 응답별로 범주화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학교 안 쓰기 활동이 재미없는 이유

범주화	학생들의 답변
흥미 없는 쓰기 주제(top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시간에 쓰는 주제가 재미없는(관심없는) 주제이다. 써야 하는 주제가 공감이 가지 않고 흥미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나에게 흥미가 없는 글을 써야 해서. 지루해서(따분해서).
직접 쓰기 수행 경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을 써 본 적이 별로 없다.
쓰기 전략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쓰기 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재미없다.
매체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으로 글씨 쓰는 게 손이 아프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학교 안 쓰기 활동이 재미없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흥미 없는 쓰기 주제(toptic)였다. 그런데 쓰기 주제에 대한 흥미가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연구된 바 있다(Hidi & McLaren, 1991; Renniger, Ewen, & Lasher, 2002). 특히 Renniger, Ewen, & Lasher(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흥미 있는 주제를 쓰기 과제로 제시받았을 때 좀 더 쓰기에 집중하며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쓸 내용을 구상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학교 쓰기 교육을 담당하는 국어교사들은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쓰기 과제 구성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안 쓰기가 재미없는 이유 중 '손으로 글씨 쓰는 게 손이 아프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어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을 불편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라 학교 안 쓰기 수행 흥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χ^2 통계값은 16.009a($df=9$, $p=0.067$)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쓰기 태도의 발달적 경향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Parajes *et al.*(2007), Knudson(1991, 1992), 윤준채(2009), 박영민(2006, 2007), 전제웅(2007) 등이 있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쓰기 태도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별에 따라 학교 안 쓰기 수행 흥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11.007($df=3$, $p=0.012$)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 안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별과 학교 안 쓰기 수행 흥미도의 상관에 대한 검정 결과, Crammer V값이 0.169일 때 유의확률은 0.012로 나타나 성별과 학교 안 쓰기 수행 흥미도는 상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학교 안 쓰기 수행 흥미도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4>와 같이 '전혀 재미있지 않다'와 '재밌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선택지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재밌다'와 '아주 재밌다'라는 긍정적인 선택지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응답을 보여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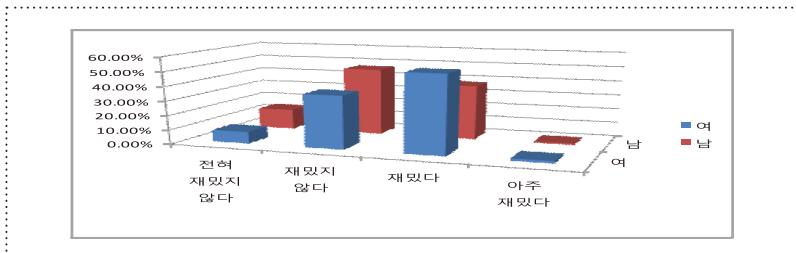


그림 4. 학교 안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

표 8. 학교 안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 · 서열 교차표

		성별		전체
		여	남	
전혀 재밌지 않다	빈도	15	29	44
	성별 중 %	8.2%	14.3%	11.4%
재밌지 않다	빈도	67	95	162
	성별 중 %	36.6%	46.8%	42.0%
재밌다	빈도	98	77	175
	성별 중 %	53.6%	37.9%	45.3%
아주 재밌다	빈도	3	2	5
	성별 중 %	1.6%	1.0%	1.3%
	빈도	183	203	386
	성별 중 %	100.0%	100.0%	100.0%

이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쓰기 흥미도가 낮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Pajares *et al.*, 2007; Pajares & Valiante, 2001)와도 일치한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의 학교 안 쓰기 수행에 대한 흥미도보다 낮았으며 학교 안 쓰기 수행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연구 참여자 중 반수가 넘었다. 이

는 남학생들 반 이상이 학교 안에서의 쓰기 수행을 싫어한다는 Millard & Marsh(2001)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쓰기에 대한 흥미도는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쓰기 평가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미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다른 나라의 국가단위 쓰기 평가에서 남학생들의 성취도는 여학생의 성취도와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국제적 동향이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남학생의 낮은 쓰기 성취도와 낮은 쓰기 흥미도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수행하고 있는 쓰기 활동의 유형과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그 결과가 학교 안에서의 남학생들의 낮은 쓰기 성취와 낮은 쓰기 동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 학교 밖 쓰기 수행 유형

다음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어떤 쓰기 활동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9. 학교 밖 쓰기 유형

	빈도	퍼센트
일기	41	11.3
소설	22	6.0
시	10	2.7
내 블로그에 글쓰기	90	24.7
친구 블로그에 댓글쓰기	132	36.3
카페 게시판에 글쓰기	48	13.2
기타	2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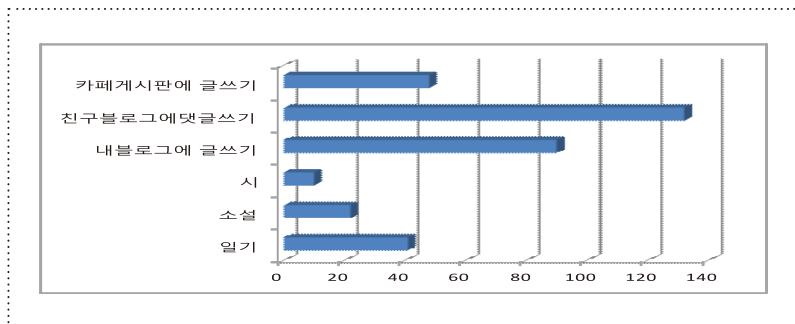


그림 5. 학교 밖 쓰기의 유형

〈표 9〉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밖 쓰기 수행 유형은 ‘친구 블로그에 댓글 쓰기’ > ‘내 블로그에 글 쓰기’ >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글쓰기 > 일기 쓰기 > 소설 쓰기 > 시 쓰기’ 순으로 많았다. 그런데 쓰기 활동의 비중에서 가장 상위부터 세 가지가 인터넷 매체를 기반으로 한 쓰기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쓰기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의미한다. 웹에서의 쓰기는 이전의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쓰기와는 다른 인지적 활동을 요구하며 인쇄 매체에서보다 사회적 소통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달라진 상황에 대한 쓰기 교육 연구자와 교수자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Duffty & Bruns, 2006).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청소년들의 학교 밖 쓰기 유형을 살펴보면 ‘친구 블로그에 댓글 쓰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댓글 쓰기는 몇 문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글쓰기이다.⁴ 그런데 댓글 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온전한 글 한편 쓰는 데는 고차원

4 본 연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 문장 이상일 경우 쓰기 수행으로 정의했다. 이는 전통적인 쓰기 연구에서는 한 편의 완전한 글쓰기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everyday life)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실제적인 쓰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는 언어 사용자의 문식성 실천을 생생히 담아내어 쓰기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적인 인지적 사고과정이 동원되나, 댓글 쓰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정종원, 2010)는 시각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관점에서는 짧은 글 쓰기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에 진출하여 형식을 갖춘 온전한 글 한편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반면, 친구 블로그에 댓글 쓰기는 분명한 예상 독자를 고려하며 글을 쓰는 행위이자 관계 지향적 목적을 가지는 글 쓰기이므로 쓰기 교육에 함의를 가진다는 것이 긍정적 관점이다. 또한 댓글은 타인의 시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수정하고 의미화하게 하므로 사회적 인지과정을 촉진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Ellison & Wu, 2008)는 의견도 있다. 두 관점은 모두 쓰기 교육에 함의를 줄 수 있다. 즉 짧은 글에서 나타나는 쓰기의 특징을 고려하고, 개인 블로그, 카페 게시판과 같은 다양한 글쓰기 공간에서 그에 적합한 글쓰기를 경험하게 하여 학습자의 쓰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쓰기를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밖 쓰기가 성별에 따라 쓰기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χ^2 통계값은 34.764(df=6, p=0.000)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과 학교 밖 쓰기 수행 유형의 상관에 대한 검정 결과, Crammer V값이 0.309일 때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성별과 학교 밖 쓰기 수행 유형은 상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쓰기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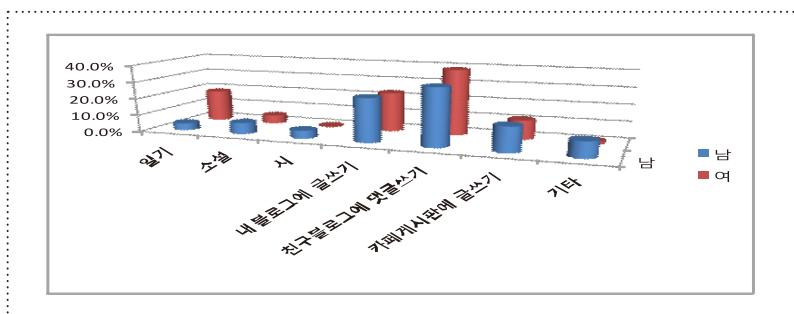


그림 6. 성별에 따른 학교 밖 쓰기의 유형

표 10. 학교 밖 쓰기 유형 1·성별 교차표

		성별		전체
		여	남	
일기	빈도	33	8	41
	성별 중(%)	18.9%	4.2%	11.3%
소설	빈도	9	13	22
	성별 중(%)	5.1%	6.9%	6.0%
시	빈도	1	9	10
	성별 중(%)	0.6%	4.8%	2.7%
내 블로그에 글쓰기	빈도	41	49	90
	성별 중(%)	23.4%	25.9%	24.7%
친구 블로그에 댓글쓰기	빈도	68	64	132
	성별 중(%)	38.9%	33.9%	36.3%
카페 게시판에 글쓰기	빈도	20	28	48
	성별 중(%)	11.4%	14.8%	13.2%
기타	빈도	3	18	21
	성별 중(%)	1.7%	9.5%	5.8%
	빈도	175	189	364
	성별 중(%)	100.0%	100.0%	100.0%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은 선택지는 ‘일기 쓰기’와 ‘친구 블로그에 댓글 쓰기’였다. 보통 일기 쓰기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서술이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댓글 쓰기는 관계 유지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여학생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과 감정에 대한 글을 쓰거나 친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여학생의 문식 활동을 질적으로 연구한 Finders(1996)에서도 여학생들이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문식 활동을 사용하며 쓰기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 유지해 가는 모습이 밝혀진 바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선택지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글쓰기'이다. 인터넷 카페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주로 나누는 글쓰기로 운영된다.

이는 선행 연구 Merisuo-Storm(2006)에서 남학생은 목적이 분명한 글 쓰기나 타인과 소통하는 글쓰기를 즐겨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가령 정보를 주거나 받는 글쓰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쓰기,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글쓰기가 이에 해당한다(Wilhelm, 2000).

이에 앞 장에서 도출한 결과인 학교 안에서의 쓰기 수행에 대한 남학생의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낮다는 점, 이러한 남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학년이 올라가도 지속된다는 점(Kear, Coffman, McKenna, Ambrosio, 200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낮은 쓰기 성취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연관지어 고려했을 때, 쓰기 교육에서는 남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쓰기 유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낸 남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쓰기 수행의 유형은 쓰기 교육 내용 구성 시 참고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학년에 따라 학교 밖 쓰기 수행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으나, χ^2 검정 결과 학년별 쓰기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 학교 밖 쓰기 수행 이유

앞 장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안에서의 쓰기 수행은 과반수의 학생들이 재미없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의 쓰기 수행은 재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왜 학교 안에서의 쓰기 수행은 재미없어하면서 학교 밖의 쓰기 수행을 재밌어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밝힌 쓰기 수행의 이유이다.

표 11. 학교 밖 쓰기 이유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정보 전달	48	12.4	13.9
	의견 표현	105	27.1	30.4
	나를 표현	68	17.5	19.7
	관계 유지	27	7.0	71.9
	시간 때우기	76	19.6	22.0
	기타	21	5.4	6.1
	합계	345	8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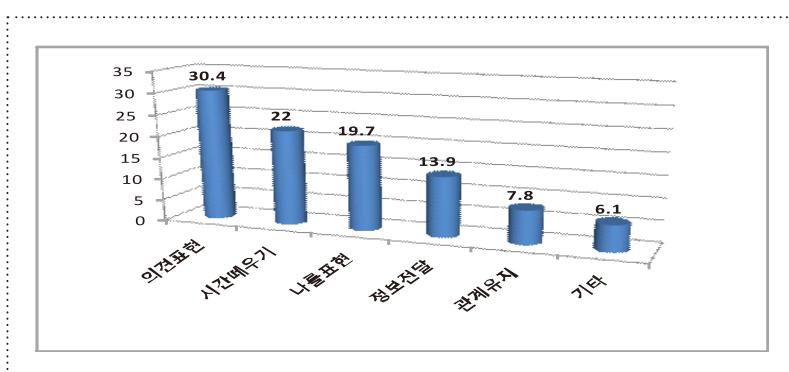


그림 7. 학교 밖 쓰기의 이유

연구 참여자가 밝힌 학교 밖에서의 자발적인 쓰기 수행의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은 ‘의견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전체 응답의 30.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의 ‘나를 표현하기 위함’도 전체 응답의 19.7%로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Leander *et al.* (2006a)는 청소년들의 학교 안 수업에서의 쓰기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쓰기 활동을 연구한 결과 쓰기 환경이 인쇄 매체에서 인터넷 기반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쓰기의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과거에는 지식과 권위를 갖춘 소수의 사람들만 출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표출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 기반의 쓰기가 가능한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포함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쓰기의 권위(authority)가 재분배되었음을 의미한다(Knobel & Lankshear, 2007).

이렇게 학교 밖 쓰기 수행이 인터넷을 매체로 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의견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려는 목적의 글쓰기는 학생 필자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다음은 순 두 번째를 차지한 시간 때우기 용도의 글쓰기는 쓰기의 질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어 부정적인 쓰기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성별에 따라 쓰기 수행의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정을 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이유 차이 검정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다음은 학년에 따른 구체적인 쓰기 수행의 이유이다.

표 12. 학교 밖 쓰기 이유 1⁵ · 학년 교차표

		학년				전체
		중1	중2	중3	고1	
정보 전달	빈도	11	18	11	8	48
	학년 중(%)	13.8%	16.1%	12.6%	12.1%	13.9%
의견 표현	빈도	28	28	25	24	105
	학년 중(%)	35.0%	25.0%	28.7%	36.4%	30.4%
나를 표현	빈도	11	21	18	18	68
	학년 중(%)	13.8%	18.8%	20.7%	27.3%	19.7%

- 5 학생들에게 설문에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 설명 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글쓰기'는 특정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며 '나를 표현하기 위한 글쓰기'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글을 쓰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글쓰기'나 '나를 표현하기 위한 글쓰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두 항목 모두 긍정적인 청소년 쓰기 형태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두 항목을 합쳐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그 비중은 전체 응답의 50.1%로 커지게 된다.

관계 유지	빈도	3	8	9	7	27
	학년 중(%)	3.8%	7.1%	10.3%	10.6%	7.8%
시간 때우기	빈도	25	29	16	6	76
	학년 중(%)	31.2%	25.9%	18.4%	9.1%	22.0%
기타	빈도	2	8	8	3	21
	학년 중(%)	2.5%	7.1%	9.2%	4.5%	6.1%
	빈도	80	112	87	66	345
	학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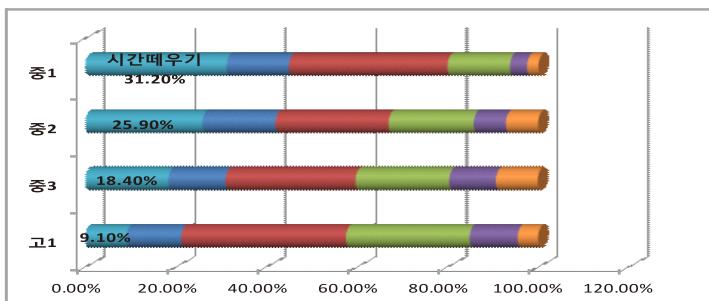


그림 8. 학년에 따른 학교 밖 쓰기 수행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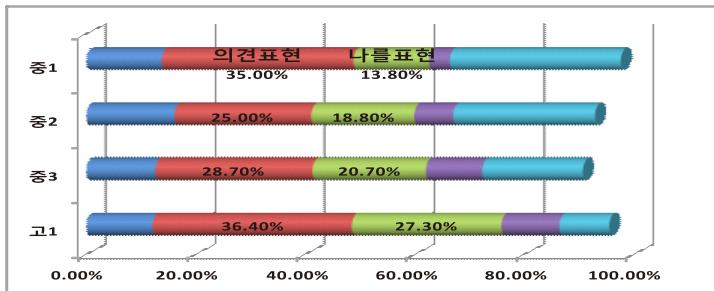


그림 9. 학년에 따른 학교 밖 쓰기 수행의 이유

학년에 따라 학교 밖 쓰기 수행의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28.260($df=15$, $p=0.020$)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학교 밖 쓰기 수행의 이유에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년과 학교 밖 쓰기 수행의 이유의 상관에 대한 검정 결과, Crammer V값이 0.164일 때 유의확률 0.020으로 나타나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림 8>과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쓰기 이유에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쓰기 수행 이유에 일정한 변화추이가 관찰되어 흥미롭다. 가령, 쓰기 이유 중 ‘시간 때우기’는 중1에서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31.2% > 25.9% > 18.4% > 9.1%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의견 표현’이나 ‘나를 표현’과 같이 유목적적인 쓰기 행위는 48.8% < 43.8% < 60.9% < 63.7%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중·고등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기를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행위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세상에 표출하는 행위로 깨닫게 되며, 점차 쓰기 본연의 기능을 인식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Tomas(2007)는 쓰기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청소년들은 인터넷 기반 환경에서 쓰기를 통한 자기 표현과 정체성 형성이 더욱 뚜렷하다고 밝힌 바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과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식성 실천 공간은 이미 인쇄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컴퓨터 매체를 이용한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수업은 여전히 인쇄 매체 기반의 종이와 필기도구를 통한 쓰기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

실과 본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안 쓰기 활동이 재미없는 이유(표 7)로 ‘손으로 글씨 쓰는 게 손이 아프다.’라는 의견을 다수 표명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학교 안 쓰기 교육의 매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물론 인터넷 기반 매체의 쓰기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쓰기 활동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의 참여자들이 학교 안의 쓰기 수행은 재미없다고 밝힌 한편 학교 밖의 쓰기 수행은 재미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학생들은 쓰기에 대한 흥미가 여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내외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쓰기 평가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낮은 성취를 보이고 있고 흥미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남학생들의 낮은 쓰기 성취는 현재의 학교 안 쓰기 교육 내용과 방법이 남학생들의 흥미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쓰기 흥미도와 쓰기 성취도를 보이는 남학생들을 위한 쓰기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쓰기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쓰기 매체에서 컴퓨터(인터넷) 매체를 즐겨 사용하며, 여학생들은 일기 쓰기나 친구 블로그에 글쓰기를 즐겨하는데 반해 남학생들은 카페 게시판에 글쓰기를 즐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서술이나 자신의 감정을 기술하는 글쓰기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글쓰기를 많이 하며 남학생들은 목적이 분명한 글쓰기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글쓰기를 즐겨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학생의 쓰기에 관한 연구인 Finders(1996)와 남학생의 쓰기에 관한 연구인 Merisuo-Storm(200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안 쓰기 수업에서 낮은 쓰기 흥미도를 보이는 남학생들에게는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환경에서 학생 필자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쓰기 이유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는 ‘시간 때우기’가 가장 높았으

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견을 표현하기’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통해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수행해 가는 청소년 문식성 실천의 특징(Tomas, 2007)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쓰기 교육에서는 청소년 필자를 주어진 과제 하에서만 글을 쓰는 수동적 필자가 아니라 쓰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며 표현하는 적극적 필자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 쓰기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국내 쓰기 연구는 주로 학교 안을 연구 범위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나누어 접근한 쓰기 연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학교 밖이 쓰기 교육에 함의하는 풍부한 의미를 평가절하시킬 수 있다. 일찍이 Dewey(1998)가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인 실제적 삶과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과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쓰기 교육에서도 청소년들의 학교 밖 쓰기 활동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교사들에게는 실제적이고 효용성 있는 쓰기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교 안 쓰기 수업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3. 6. 30. 투고되었으며, 2013. 7. 8. 심사가 시작되어 2013.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노명완·이차숙(2002), 『文識性研究』, 서울, 博而精出版社.
- 정종원·김명랑(2010), 「대학 수업에서 블로그 기반 학습활동이 인지 조절 능력 활용에 대한 학습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26(4)호, pp. 27-4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TIMSS): PISA 2009 결과에 기반한 읽기 영역 성취 특성 비교』, RRE 2011-4-3.
- Ball, Arnetha.(2000), Empowering pedagogies that enhance the learning of multicultural students, *The Teachers College Record*, 102(6), pp. 1006~1034.
- Barton, David(2007), *Literacy: An introduction to the ecology of written language*, Wiley-Blackwell.
- Barton, D. & Hamilton, M.(1999), *Literacy practices. Situated literacies: Reading and writing in context*, pp. 7-15
- Barton, David & Ivanič, Roz.(1991), *Writing in the community*, Sage Publications.
- Bolter, Jay David(1998), Hypertext and the question of visual literacy, *Handbook of literacy and technology: Transformations in a post-typographic world*, pp. 3~14.
- Brozo, W. G.(2002), *To be a boy, to be a reader: Engaging teen and preteen boy sinactive literacy*.
- _____(2006), Bridges to literacy for boys, *Educational Leadership*, 64(1), 71
- Camitta, Miriam(1993), Vernacular writing: Varieties of literacy among Philadelphia high school students, *Cross-cultural approaches to literacy*, pp. 228~246.
- Cintron, Ralph(1991), Reading and writing graffiti: A reading, *The Quarterly Newsletter of the Laboratory of Comparative Human Cognition*, 13(1), pp. 21~24.
- Cohen, Jennifer L.(2006), *Global links from the postindustrial heartland: Language, Internet use, and identity development among US-born Mexican high school girls*.
- Cushman, Ellen(1998), *The struggle and the tools: Oral and literate strategies in an inner city community*, SUNY Press.
- Colley, A. & Comber, C.(2003),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 use and attitude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what has changed?, *Educational Research*, 45(2), pp. 155~165.
- Comber, C., Colley, A., Hargreaves, D. J. & Dorn, L.(1997), The effects of age, gender and computer experience upon computer attitudes, *Educational Research*, 39(2), pp. 123~133.
- Dewey, John(1998), *Experience and education*: Kappa Delta Pi.
- Duffy, Peter D. & Bruns, Axel(2006), *The use of blogs, wikis and RSS in education: A conversation of possibilities*.
- Durndell, A. & Thomson, K.(1997), Gender and computing: a decade of change?, *Computers & Education*, 28(1), pp. 1~9.
- Dutro, E.(2002), Us Boys Like to Read Football and Boy Stuff: Reading Masculinities, Performing Boyhood.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4(4), pp. 465~500.
- Ellison, Nicole & Wu, Yuehua(2008), Blogging in the classroom: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student attitudes and impact on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Multimedia and Hypermedia*, 17(1), pp. 99~122.

- Finders, Margaret J.(1996), "Just Girls" Literacy and Allegiance in Junior High School, *Written Communication*, 13(1), pp. 93~129.
- (1997), *Just Girls: Hidden Literacies and Life in Junior High*: ERIC.
- Hargittai, Eszter(2005), Survey measures of web-oriented digital literacy,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3(3), pp. 371~379.
- Heath, Shirley Brice & McLaughlin, Milbrey W.(1993), *Identity and Inner-City Youth: Beyond Ethnicity and Gender*: ERIC.
- Hidi, Suzanne E. & McLaren, John A.(1991), Motivational factors and writing: The role of topic interestingnes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6(2), pp. 187~197.
- Hyatt, K.(2003), *Literacy outside school more real for boys. Teaching & Learning*, Retrieved May 2003.
- Johansson, V.(2009), *Developmental aspects of text production in writing and speech*, 48.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Centre for Languages and Literature, Lund University.
- Kadijevich, D.(2000),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 attitude among ninth-grad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22(2), pp. 145~154.
- Kear, Dennis J., Coffman, Gerry A., McKenna, Michael C. & Ambrosio, Anthony L.(2000), Measuring attitude toward writing: A new tool for teachers, *The Reading Teacher*, pp. 10~23.
- Knobel, Michele(2002), *Everyday Literacies: Students, Discourse, and Social Practice* (Counterpoints, Vol 80).
- Knobel, Michele & Lankshear, Colin(2007), *A new literacies sampler*(Vol. 29): Peter Lang Pub Incorporated.
- Lankshear, Colin, Gee, James Paul, Knobel, Michele & Searle, Chris(1997), *Changing Literacies*, Changing Education Series: ERIC.
- Leander, Kevin M. & Rowe, Deborah Wells(2006), Mapping literacy spaces in motion: A rhizomatic analysis of a classroom literacy performance, *Reading Research Quarterly*, 41(4), pp. 428~460.
- Lee, Soon Young(2007), *Korean adolescent engaged readers: Their self-perceptions, literacy practices, and negotiations inside and outside of a seventh grade classroom*: ProQuest.
- Lyytinen, H.(2002), *Why are Finnish students doing so well in PISA?* : Paris: OECD
- Merisuo-Storm, Tuula(2006), Girls and boys like to read and write different text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2), pp. 111~125.
- Millard, Elaine(2001), Aspects of gender: how boys' and girls' experiences of reading shape their writing, *The Writing Classroom*.
- Moje, Elizabeth(2002), Re-framing adolescent literacy research for new times: Studying youth as a resource. *Literacy Research and Instruction*, 41(3), pp. 211~228.
- Moss, Beverly J.(1994), *Literacy across communities*: Hampton Pr.
- Millard, E.(2003), Towards a literacy of fusion: new times, new teaching and learning?, *Reading*, 37(1), pp. 3~8.
- Millard, E. & Marsh, J.(2001), Words with pictures: The role of visual literacy in writing and its implication for schooling, *Reading*, 35(2), pp. 54~61.
- Mitra, S. K.(2001), *Digital signal processing: a computer-based approach*, McGraw-Hill.

- Olson, David R.(1996), Towards a psychology of literacy: On the relations between speech and writing, *Cognition*, 60(1), pp. 83~104.
- Pajares, Frank & Valiante, Giovanni(2001), Gender differences in writing motivation and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 function of gender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6(3), pp. 366~381.
- Pajares, F., Johnson, M. J. & Usher, E. L.(2007), Sources of writing self-efficacy belief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pp. 104~120.
- Prensky, Marc(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2: Do they really think differently?, *On the horizon*, 9(6), pp. 1-6.
- Purves, Alan(1998), Flies in the web of hypertext, *The handbook of literacy and technology: Transformations in a posttypographic world*, pp. 235~251.
- Renninger, K. A., Ewen, L. & Lasher, A.(2002), Individual interest as context in expository text and mathematical word problems, *Learning and Instruction*, 12(4), pp. 467~490.
- Scieszka, J.(2002), Getting guys to read, *NEA Today*, 20(6), p. 23.
- Shashaani, L.(1997),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 attitudes and us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16(1), pp. 37~52.
- Thomas, Angela(2007), *Youth online: Identity and literacy in the digital age* (Vol. 19): Peter Lang Pub Incorporated.
- Whitley, B. E.(1997),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 A meta-analysi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1), pp. 1~22.
- Wilhelm, J. D., Close, E. & Ramsey, K.(2000), When reading is stupid: The why, how and what to do about it, *A middle mosaic: A celebration of reading, writing, and reflective practice at the middle level*, pp. 3~10.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학교 밖 쓰기 활동의 차이

이지영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보다 학교 밖에 서 더 활발한 쓰기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매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쓰기 흥미도의 경우 과반수의 학생들이 학교 안 쓰기 활동이 재미 없다고 응답했으며, 성별 차이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쓰기에 대한 흥미도가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밖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쓰기 유형이 인터넷 매체를 기반으로 한 쓰기라는 점은 쓰기 연구자와 교수자에게 학생들의 달라진 쓰기 상황과 목적,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또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인터넷 카페에 글쓰기를 더 많이 수행함으로써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쓰기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일기 쓰기와 친구 블로그에 댓글 쓰기를 더 많이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쓰기와 관계 유지를 위한 쓰기를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쓰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 때우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함의 비중이 커짐을 통해, 쓰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 문식성 실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핵심어 청소년, 문식성, 쓰기, 쓰기교육, 쓰기활동, 인터넷 매체, 정체성, 학교 밖

ABSTRACT

Difference by gender and grades on Adolescents' Out of School Writing

Lee, Ji-yong

According to this survey resul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writing more active out of school than in of school and were more likely to use internet than print. Low level on writing interest in school hold a majority of the students and boys are less likely to like writing in school than girls. The fact that Internet is the most common tool of writing demands us to do new understanding on writing context, purpose and process. Unlike girl, boys are writing with the purpose of information sharing on Internet message boards. Unlike boy, girls keep a journal of daily events and write with the purpose of relational maintenance on friens's web blog.

The results that killing time has been decreasing and express themselves has been increasing with advancing years on reason of writing allow us know the distinct writing features of adolescents that forming and expressing self-identity through their writing.

KEYWORDS adolescent, literacy, writing, writing education, internet, identity, out of school